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사업 본격화

전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핵심사업으로 내건 아시아 문화 심장터의 한 축인 서학동예술촌에 대한 마을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 등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전주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일 열린 사회적경제지원단 신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분야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주민주도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 도시재생 △나눔, 배려, 공유, 연대의 협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리'의 가치로 신뢰 넘치는 전주공동체 조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미래유산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서학동예술촌 일대 약 20만6000㎡를 대상으로 미래유산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학동예술촌 주변에 존재하는 근·현대 건축자산들을 조사하고, 마을이야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마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마을조사와 주민설명회, 계획 수립 용역,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는 원도심의 심장부였던 전주부성 일원에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창조적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발복·승안 새물

마을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은 문화와 예술이 점진적으로 파고들어 인권·예술마을로 변화시킨 전국 유일의 사례로 만들고,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한 전주역 앞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아중호수중심의 아중호반도시 조성을 위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나눔과 배려, 공유, 연대의 협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총 345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북사회경제포럼 등

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컨설팅 TF팀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대학생 서포터즈 및 프론티어(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약자를 돕는 활동) 운영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도·관리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제3회 행복의 경제화 국제회의 개최, 사회적경제 한마당 추진 등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빛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상담, 통합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중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는 채무대리인제도 운영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도서관 운영위 개최

전주시가 시립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인증된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등 독서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은 동네서점 살리기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립도서관은 2일 완산도서관 회의실에서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과 김정자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도서관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서관 신규시책 및 역점사업 등 2017년도 전주시립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작은도서관 장서폐기 및 지역서점 인증 기준변경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독서인구 감소와 모바일 보급 확산 및 전자책(e-book) 활성화 등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재정비했다. 이 제도는 전주지역 내 서점이면서 일정 규모의 실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라장터 등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

체에 대해 전주시가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도서 수요기관 및 구매자에게 서점 정보를 제공해 구매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동네서점들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립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구입비 8억원 가량을 연간 20회 이상 분할 발주, 인증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도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전주시서점조합에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시민 도서 무료증정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김영재 기자

말 물어오는 노인 위험한 50대 징역 4개월 집행 1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일 말을 물어오는 노인을 위협하고 손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이모씨(57,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 26일 오전 5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에서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분실 있냐고 물어오자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낫을 들고 나와 A씨를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A씨를 도우러 나온 손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분실 있거나 주변에서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포켓몬 GO' 보행자 사고 급증 우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지난달 24일 오픈해 짧은 시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GO'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포켓몬GO를 즐기는 시민들은 스마트폰만 주시하며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노출될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월 전북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급증한

대 따른 조치이다. 경찰청은 짧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포켓몬GO로 인해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는 보행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포켓몬GO를 하기 위해서는 전방을 주시하기가 어렵고 각종 강도나 소매치기, 사유지 침범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희귀한 포켓몬이 출현한다고 알려진 덕진공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포



켓몬GO 이용자가 강도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행 중에도 전방을 항상 주시하고 강력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축제 열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평생학습 역량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3일 오후 1시 30분 전

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전사가 진행되고 이날 오후 3시 전북대 평생교육원 놀배 음악아트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음악과 댄스 등 13개 공연 및 미술, 문학 등 18개 전시 분야에서 총 5백여명이 참여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배운 역량을 선보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 강사와 우수 수강생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